



“83일째, 한창 힘들 시기...‘소통’으로 뭉치면 이길 수 있어요”

YTN, MBC, KBS 조합원들이 전하는 살아있는 조언

연합뉴스 노조는 파업 80일을 넘기며 전인미답의 길을 가고 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오락가락 행보를 서슴지 않는 박정찬 사장 탓에 협상이 지지부진 해지면서 조합원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

노보팀은 이에 ‘파업 선배’적인 다른 파업 언론사들로부터 이 시기를 슬기롭게 지내는 방법을 물었다. 파업 사태를 4년 이상 경험한 YTN 노조, 128일째 사측과 대치하고 있는 MBC 노조, 92일간 파업을 지속하는 KBS 새노조 조합원들은 “지금쯤 연합뉴스 조합원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며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어린 조언을 내놓았다.

#갈등은 당연한 것...지금 필요한 건 ‘소통과 유대감’

타사 파업 참여자들은 “파업 80일 즈음이면 조합원들이 서로를 다독이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유대감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YTN의 18년 차 기자 A씨는 “이 시기에는 노조 안에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갈등과 고민,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당연한 일이고 상황이 악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다면 언젠가 터질 게 터진 것일 뿐”이라며 “이견을 가진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파업 일정에 나오는 사람만 나오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C의 10년차 기자인 B씨도 “일단 전반적으로 서로가 잘 챙겨주는 게 중요하다”며 “집회나 일정에 참여를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을 보채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점을 힘들어하는지 따뜻한 관심을 내비치며 ‘우리는 당신과 같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지치지 않고 오래간다”라고 조언했다.

#지치셨죠? 승리를 위해 노세요!

타사 조합원들이 꼽은 최고의 피로회복제는 ‘재미있는 놀이’였다.

KBS의 6년차 기자인 C씨는 “썰일 대로 썰인 정신적 피로를 완화하려면 재미있고 보람 있는 이벤트가 필요하다”며 “KBS 조합원들은 현충일인 내일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체력 보강, 친목 도모, 시민 선전전 등 세마

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6년차 PD인 MBC의 D씨도 아기자기한 파업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은 목표를 성취해 나가다 보면 ‘내가 뭔가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YTN의 A씨는 “꼭 낮에 대규모로 모이지 않더라도 저녁에 소규모로 만나 어깨를 다독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A씨는 잠시 파업과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파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면 선후배, 동기들에게 “오늘은 좀 쉬려고 집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개인적 즐거움을 찾는 활동을 하라는 것이다. 나의 파업 스트레스와 히스테리가 다른 조합원에게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A씨는 “공격적인 발언으로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는 계기는 대개 아주 사소하다”며 “타인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긴다”고 전했다.

MBC의 4년차 기자 E씨도 “불안은 전염되는 것 같다”며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 보다는 등산, 낚시 등을 함께 즐기며 논다”고 자신의 대처법을 소개했다.

#텅 빈 주머니 사정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

한살 배기 아기 아빠인 MBC의 B씨는 “육아휴직에 들어가려던 아내가 내 파업 때문에 일을 계속하게 됐는데, 재정 문제로 육아 도우미도 끊었다”며 “경제적인 문제는 딱히 답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MBC의 한 카메라 기자는 어버이날,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주위에 잘 알리지도 못해 혼자 끙끙 앓게 되는 경우가 많다.

B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조합원들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자꾸 챙겨줘야 한다”며 “어려운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의 C씨는 “파업 비용을 충당하고 형편이 어려

운 조합원들을 지원하려고 파업기금을 십시일반으로 모았을 때 의외로 많은 돈이 들어와 깜짝 놀랐다”며 “돈도 돈이지만 파업 열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KBS 보도국 조합원 사이에서만 약 2천만 원 정도가 모여 1인당 10만원 이상을 쾌척한 것으로 확인됐다.

MBC의 E씨는 “술이나 밥을 먹을 때는 되도록 같은 연차를 많이 불러서 한명이 몰아서 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한다”며 “또 시간은 많이 들어도 돈은 적게 드는 놀이문화로 패턴을 바꾸고 있다”며 ‘빈곤’을 극복하는 지혜를 알려줬다.

#남들이 뭐래도 공정정보만을 생각해야

혹시라도 파업하는 언론사 조합원들이 서로를 의식하면서 파업경쟁을 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왔다.

A씨는 “연합뉴스 조합원들이 ‘MBC 파업은 국민적 관심을 받는데 왜 연합뉴스 파업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MBC는 끝까지 간다고 하는데 연합뉴스가 이쯤에서 멈출 수 없지’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는지 궁금하다”며 “이런 생각은 정말 필요가 없다. 철저히 ‘연합뉴스의 공정정보’만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와 다른 언론사는 구성원과 환경, 분위기가 다른데 결론이 같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또 연합뉴스 자신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대중이 모른다고 해서, 우리를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 할 필요는 없다는 것.

순수하게 파업만을 생각하려면 후배들의 눈동자를 보라고 A씨는 조언했다. 그는 “승진 걱정 등으로 때가 묻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만을 생각하는 후배들이 확신에 찬 표정을 하고 있으면 선배들도 안심하고 지금 가는 길이 옳다고 믿게 된다”며 “후배들이야말로 파업의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D씨는 정신과 전문의인 정혜신 박사가 MBC 노조를 지지 방문해 해준 ‘인디언 기우제’ 이야기를 소개했다. 인디언 기우제는 성공률이 100%인데, 이는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하기 때문. 파업 투쟁 역시 마찬가지라고 한다. D씨는 “MBC도, 연합뉴스도 목표를 향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대오를 유지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노조, ‘사장 맞이’현관 시위로 투쟁 강도 ‘UP’

연합뉴스 노조는 5일 박정찬 사장 출근 시간대에 맞춰 본사 건물 입구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며 투쟁의 강도를 높였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50분부터 본사 7층 사장실 앞에 모여 있던 조합원 100여명 중 20여명을 1층 후문에 배치, ‘사장맞이’ 시위를 벌였다.

후문에 배치된 조합원들은 9시10분부터 20여분간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벌인 뒤 대오를 정비, 후문앞에 두 줄로 늘어서 박사장을 기다렸다.

박 사장이 회사에 도착한 것은 9시40분께. 조합원들은 차에서 내리는 박 사장을 향해 ‘연합뉴스 바로서야

한국 언론 바로선다’는 구호를 힘차게 외쳤고, 박사장은 아무 말 없이 조합원들을 바라보다 7층 사장실로 향했다. 박 사장은 7층에서도 묵묵히 조합원들을 바라보다 “가자”는 말 한 마디만 남긴 채 내려갔다.

후문 기습 시위에 참여한 강훈상 조합원은 “구호를 외치니 사장이 계속 쳐다보더라”면서 “여기 7층(사장실)에서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 노력하고 갔다. 상당한 압박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병설 노조위원장은 “조속한 (협상) 타결을 바라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아직 여건이 안 된다”면서 사측의 이중적인 태도가 현 파업 상황 해결을 지연시

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 위원장은 “박 사장 측은 협상 테이블에서 오가는 안들을 밖에서 얘기하지 말자고 하면서도 우리가 제시한 안은 외부에 조금씩 흘리고 있다”면서 “자신의 제안을 스스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